2003년 10월 27일

제2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특별연설

생명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 연구원, 그리고 젊은 학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심포지엄을 위해 해외에서 오신 하트웰 박사님을 비롯한 저명하신 박사님 여러분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느라 하트웰 박사님의 강연을 듣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저는 하트웰 박사님을 만나면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시면 하느님의 비밀스런 영역이 얼마나 남겠느냐고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 뵙고 나서는 한국의 연구인력 수준과 연구소 환경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치중해서 얘기를 나누고 말았습니다.

오늘 청주에서는 그야말로 바이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열풍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봅니다. 바이오테크는 정부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할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바이오테크는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각종 질병을 퇴치하고 식량과 환경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

입니다.

바이오테크는 한편으로 미래 우리 경제의 활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이 빈약한 대신에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신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은 바로 이 인적자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어깨 위에 한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인류에게 봉사한다는 자긍심과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간다는 자부심을 함께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꿈과 한국의 미래를 함께 이끌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2012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7위권의 바이오강국이 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바이오 산업은 부가가치 생산액과 고용창출에 있어서 현재보다 10배 정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규모는 8천명에서 9만 7천명으로, 부가가치 생산액은 1조 4천억원에서 16조원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오송단지가 세계적인 바이오단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오송단지를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세계 유수의 연구소와 바이오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해외 전문가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연구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과학자 여러분,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흔히 정보를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좀더 근본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권력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가자고 하는 방향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은 시장에 있습니다. 시장은 누가 지배하는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지배합니다. 정보를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알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함을 의미합니다. 과학기술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승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과학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경쟁에서 승리하고 권력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느냐는 과학기술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과학자 여러분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위치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금년을 제2과학기술입국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 공공부문에서 2008년까지 기술직 공무원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기술직 비율을 현재 23%에서 30%까지 늘리겠습니다.

시장지배력이 과학기술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기술혁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이오 산업 등 10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핵심 연구인력 1만명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같은 투자를 가지고도 2배의 효율을 올려 나가겠습니다. 투자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연구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과학기술입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반칙과 편법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어 줄 때라야 과학기술도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한 시장, 투명한 시장, 그리고 한국에서 바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해 열린 시장, 이러한 시장 시

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반칙이나 특혜가 통하는 시장에서는 진정한 실력자가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와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렇게 여러분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연구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핵심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과학기술을 가지고 기술영업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함께 길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경영능력을 기르면 그야말로 과학기술을 가진 사람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경영을 하던 사람이 과학기술력을 갖추기는 어렵지만 과학기술인이 경영을 배워 성공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하고 있는 기업인 삼성의 예를 보더라도 CEO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들입니다. 이렇듯 저는 여러분이 기술연구와 더불어 경영까지 익힌다면 조직과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자리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기술자를 자주 만나서 말씀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일등 신랑감' 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이공계 푸대접 문제로 걱정들이 많습니다.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제 아들에게 기술영역으로 진출해라, 기술을 토대로 해서 더 큰 시장에서 경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득권 하나를 가지고 평생 동안 우려먹겠다는 것은 도전적인 사람이 가질 정신자세가 아닙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이 선택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바로 꿈과 야망을 가진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세계를 향해 승부하고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야심찬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 줄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고 눈 딱 감고 과학기술 지원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